동아시아 주요국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

권예희*, 이지미*, 배채은O, 홍재원*
*경상국립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O경상국립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e-mail: {yehi0807, zzimii123, imaum99}@naver.com*O, jwhong@gnu.ac.kr*

A Study on the Global Entrepreneurship in Major East Asian Countries

Ye-Hee Kwon*, Zi-Mi Lee*, Chae-Eun BaeO, Jae-Won Hong*
*Dept. of Global Trad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Dept. of Global Trad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업가정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적 태도 중 지각된 능력(SUSKILL), 지각된 실패 두려움(FEARFAIL) 등의 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SUSKILL의 수치를 봤을 때 한국은 높은 편에 속하였다. 그리고 FEARFAIL는 세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 구축 환경이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중국은 대부분 지표에서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일본은 FEARFAIL는 세 국가 중 두 번째로 나타났으나 SUSKILL 등 지표에서 세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별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s), 지각된 능력(perceived skill), 실패에 대한 두려움(fear fail), 글로벌 경영(global business)

I. Introduction

세상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 빠르게 사라지는 기업 등 여러 가지 기업이 있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기업을 세우고 이끌기 위해 기업가들에게 기업가정신이란 필수적이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 관련 기존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이라고 강조했으며[1], 기업가정신을 통한 고성장 스타트업 기업의 출현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가정신은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명된다[2]. 최근 경제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인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노력[3]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아시아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의 기업가정신[4], 샤오미의 기업가정신[5], 캐논의 기업가정신[6] 등에 대한 조명이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를 통해 국가별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s) 즉, 지각된 능력(SUSKILL), 지각된 실패 두려움(FEARFAIL)을 분석한 후 이들 요인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data

본 연구에서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2018)를 통해 한·중·일 각 국가의 SUSKILL, FEARFAIL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GEM 2018에서는 글로벌 50개 국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GEM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코드 북에 따라 no는 '0' yes는 '1'로 표시하고 이 응답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국가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엑셀을 이용하였으며, 세 국가의 데이터들을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한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가설이 성립되는지 기각되는지의 여부를 따진 후 통계의 평균을 통해 국가별 차이 정도를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 Measurements

본 연구에서의 기업가적 태도는 지각된 능력(SUSKILL), 지각된 실패 두려움(FEARFAIL)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SUSKILL	1: if the individual has the knowledge, skill, and experience required to start a new business; 0:otherwise.
LESSFEAR	1: if the fear of failure would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tarting a business; 1: otherwise

III. Results

<그림 1>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계산하여 만들어 낸 그래프이다. 한국은 0.430, 중국은 0.188, 일본은 0.005의 평균을 보였다. 그래프를 보면 한국이 세 국가 중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들, 또 기회들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고 창업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창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에 반해 일본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다른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있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창업에 대한 기회, 지식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산 분석: 일원 배치법

요약표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한	2000	860	0.4300	0.33927
일	2041	12	0.0059	0.188201
중	3828	721	0.1883	0.238098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183.1833	2	91.59167	365.0987	0	2.996873
잔차	1973.33	7866	0.250868			
계	2156.513	7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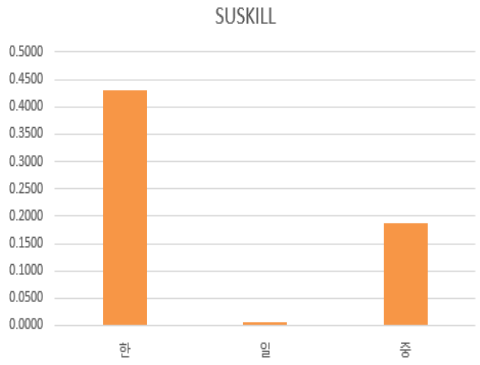

Fig. 1. Analysis of Variance of SUSKILL

<그림 2>에 따르면 한국은 0.268, 중국은 0.338, 일본은 0.313의 수치를 보인다. 앞의 모든 부분에서 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한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의 기업자 정신 구축 환경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두 국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1/3을 넘는다.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자연스럽게 막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노력의 정도, 용기의 정도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산 분석: 일원 배치법

요약표

인자의 수준	관측수	합	평균	분산
한	2000	537	0.2685	0.252534
일	2041	640	0.3136	0.485938
중	3828	1295	0.3383	0.325818

분산 분석

변동의 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6.400504	2	3.200252	9.177127	0.000104	2.996873
잔차	2743.035	7866	0.34872			
계	2749.436	7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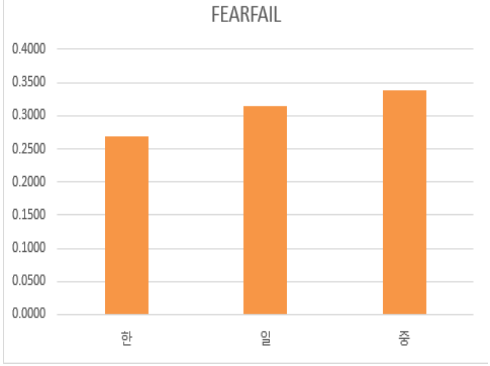

Fig. 2. Analysis of Variance of FEARFAIL

IV. Conclusions

지금 이 기업들의 성장률을 보면 모든 세 기업들 모두 계속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길이 많다. 그렇기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적고 기회와 지식, 기술도 많다고 느낀다. 그래서 본인 기업의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이런 기회와 기술이 뒷받침해주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기업가정신'에 집중해야 한다.

일본은 모든 부분에서 취약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국가였다. 기술적으로도, 기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국가였다. 그러나 캐논의 창립자들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세 명의 창업자들에게서 '기업가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뚜렷한 '기업가정신'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창업자들은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목표와 '기업가정신'을 뚜렷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회를 보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세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는 자신의 '기업가정신' 뚜렷하게 해야 한다.

REFERENCES

[1] Acs, Z. J., & Audretsch, D. B. (Eds.).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interdisciplinary survey and introduction (pp. 165-182). New York: Springer. 2010.

[2] Honjo, Y.. "Why are entrepreneurship levels so low in Japa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 36, pp. 88-101, 2015. DOI: 10.1016/j.japwor.2015.08.002.

[3] Ali, J., & Jabeen, Z..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behavior for predicting start-up intention in India: Evidence fro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data," Journal of Public Affairs, Vol. 22, No. 1, e2399, 2022. DOI: 10.1002/pa.2399.

[4] Lee E. M., Park Y. R., "Lee Kun-Hee's Entrepreneurship and Samsung's Competitive Advantage: A Dynamic Capability Perspective,"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Vol. 36, No. 2, pp. 57-90, 2021. DOI: 10.22629/kabh. 2021.36.2.003.

[5] Kim Y. W., Park H. H., Moon, B. J.,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Founder CEO of Xiaomi, Lei Jun," Korea Business Review, Vol. 23, No. 4, pp. 33-74. 2019.

[6] Lim O. S., "A Histo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of Founder and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t Canon Inc.,"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Vol. 24, No. 3, pp. 57-92, 2009. DOI: 10.22629/kabh.2009.24.3.002.